

Happy 100 호모 현대드

美·캐나다선 '실버산업이 미래업종' 젊은사업가 몰려

시리즈 순서

- ① '백세대계' 컨트롤타워 세우자
- ② 연금체계 3중 보장 갖춰야
- ③ 노후질병 막을 보건정책 필수
- ④ 노년에 일·봉사로 삶의 의미 찾기
- ⑤ 실버산업 키워 블루오션으로
- ⑥ 저렴한 비용으로 즐기는 100세
- ⑦ 100세 행복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 ⑧ 저출산 패러다임 다시 짜자
- ⑨ 건강학 실천 미루지 마라
- ⑩ 실버 일자리가 근본 해결책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마크 제이슨 씨(37)는 지난 6월 노부모의 주택을 전면 개조했다. 철손의 모진이 류머티즘 관절염 탓에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어서였다. 노인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장벽을 제거한다는 뜻인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디자인 전문기업인 '릴라이어블리빙'이 주택 개조를 맡았다.

실제로 이 회사는 제이슨 씨 모친의 삶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을 모두 없애 버렸다. 정문 앞 계단을 뜯어내고 휠체어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었으며, 1층에 위치한 화장실과 거실의 선반 높이를 60cm 낮췄다. 덕분에 제이슨 씨 모친도 혼자 힘으로 자유롭게 집 안팎을 오갈 수 있게 됐다. 제이슨 씨는 "어머니가 삶의 질이 좋아졌다며 뭉뚱이 기뻐했다"고 말했다. 100세 시대가 당장 눈앞에 다가오면서 노인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실버산업 기업들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배리어 프리를 컨셉트로 하는 곳은 릴라이어블리빙이 대표적인 사례다. 노인 인구와 경제력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실버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리란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실버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12.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4.7%)의 거의 세 배다.

배리어 프리 주택 등 아이디어 상품 넘쳐... 새 성장동력 부상

특히 실버산업 가운데 정보 관련 업종이 연평균 25.1%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여가(13.7%), 금융(12.9%), 의료기기(12.1%), 주택(10.9%) 등 업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도 2002년 13조원에 못 미쳤던 실버산업의 시장 규모가 2020년에 148조6000억원에 이르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에서 10%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실버산업에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같은 대박의 기회를 찾는 청년 기업가들이 늘고 있다.

샌드라 터머먼 메트라이프 노년시장연구소(MMI) 소장도 "최근 실리컨밸리에서 열렸던 실버산업 콘퍼런스에 젊은 창업자들이 대거 나타났다"며 "기업가 정신으로 똘똘 뭉쳐 들어 실버 비즈니스에 관심을 쏟는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가들은 릴라이어블리빙과 같은 배리어 프리 전략을 첫째로 꼽는다. 기존 제품은 신체적으로 취약한 고령 세대가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제품의 불편함을 없앤 제품이나 서비스

배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의 차이

구분	배리어 프리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사용 시 장애를 제거	모두를 위한 제품 설계
대상	노약자, 장애인, 아동	모든 소비자
목적	신체적 한계 극복, 사용자의 자긍심 고취	제품의 광범한 사용

를 제공하면 실버 비즈니스의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이미 20년 전부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배리어 프리 디자인이 소비의 동력으로 급부상했다. 기존 건축물에 배리어 프리 컨셉트를 접목한 리모델링이 이뤄지기도 하고, 건축 단계에서 배리어 프리로 특화된 상품을 내놓기도 한다.

일본 도가네 시에 5년째 거주 중인 유학생 윤하나 씨(26)는 "배리어 프리 개념이 적용된 리모델링 주택은 일반 주택보다 인기가 높고 가격도 비싼 편"이라며 "배리어 프리는 내진 설계가 가미된 주택처럼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약력이 부족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문손잡이나 수도꼭지, 근력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미끄럼을 방지

하는 신발이나 지팡이, 휠체어에 탄환자를 위해 복도나 출입구의 폭을 넓게 만든 주택 등이 바로 배리어 프리 디자인의 사례다. 심지어 주택 내부에 기존에 없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주는 업체도 생겨났다.

최근에는 주택 이외의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배리어 프리 컨셉트가 확대되고 있다. 기저귀가 대표적인 사례다.

4년 전부터 차매를 앓고 있는 주부 김숙자 씨(71)는 요실금에 따른 '실수'를 대비하기 위해 특별한 성인용 기저귀를 활용한다. 일반 성인용 기저귀는 발뺌까지 내려야 하는 팬티형으로 차매 노인이 갈아입기가 힘들다는 게 문제다.

그러나 일본 유니캡사(社)의 라이후리 리하비리 제품인 김씨의 기저귀는 옆구리에 이음 부분이 있어 그럴 필요가 없다. 머리가 차매에 걸린 김씨의 기저귀를 갈아입히는 불편함을 크게 덜어준다.

한주형 퓨처모자이크연구소장은 "노인들이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한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상품이 개발되면 결국 노인들의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기업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윈윈'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 노인들을 위해 집 이렇게 바뀌었어요 ★



주택 후면에 상하로 움직이는 리프트를 설치해 휠체어를 타고 오르내릴 수 있도록 설계한 모습. 오르막길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을 때 적합한 구조다.



계단 구조였던 정문을 오르막길 형태로 만들어 거동이 느린 노인들이 천천히 걸어다닐 수 있도록 개조한 모습. 폭을 넓히면 휠체어로도 오르내릴 수 있게 설계했다.



다층 주택 내부를 수직으로 연결하는 간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모습. 근력이 부족한 노인들이 무거운 짐을 실어날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사진 제공=릴라이어블리빙>

뉴욕엔 왜 노인에게 혜택주는 가게 많지?

미국 뉴욕 센트럴 파크 인근 웨스트사이드에 살고 있는 독신 노인 조지프 라이언 씨(71) 집 현관에는 '노인 친화적인 웨스트사이드 식료품점 가이드'가 붙어 있다.

23곳의 식료품점별로 노인이 쇼핑하기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림을 이용해 일목요연하게 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브로드웨이 2008번지

에 자리한 푸드 엠포리엄은 전화·온라인 쇼핑과 배달이 가능하며, 휠체어를 타고 방문할 수 있으며, 노인에게 매월 5%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물을 무료로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그림으로 표시돼 있다. 라이언 씨는 "독신 노인을 위해 1인분씩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푸드 엠포리엄은 장애인

용 화장실이 없다는 게 단점. 이런 화장실이 필요한 노인이라면 브로드웨이 2127번지에 있는 페어 웨이 가게를 이용하면 된다. 이 같은 내용 또한 가이드에 표시돼 있다.

뉴욕 시장부와 함께 '노인 친화적인 비즈니스'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뉴욕 의학아카데미 도리언 블록 대변인은 "뉴욕에는 식료품점뿐만 아니라 식당·마트·주점 등 300여 곳



도리언 블록 대변인

의 가게들이 '노인 친화적인 비즈니스'를 표방하고 있다"며 "한때 빈민가로 알려졌던 이스트 할렘에서만 56곳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체들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움직이지 않는다"며 "노인 친화적인 비즈니스를 내세우는 것은 노인들이 향후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취재팀=서양원 팀장(동남아)·이창훈(북유럽)·임상근(일본)·김인수(미국)·송성훈(중유럽)·전정홍(호주·뉴질랜드)·김유택(남미) 기자

공동기획: 매일경제·MetLife

중국 문화를 알면 중국 경제가 보인다!

베이징 특파원 13인이 발로 쓴 최신 중국 문화코드 52가지

베이징 특파원 중국 문화를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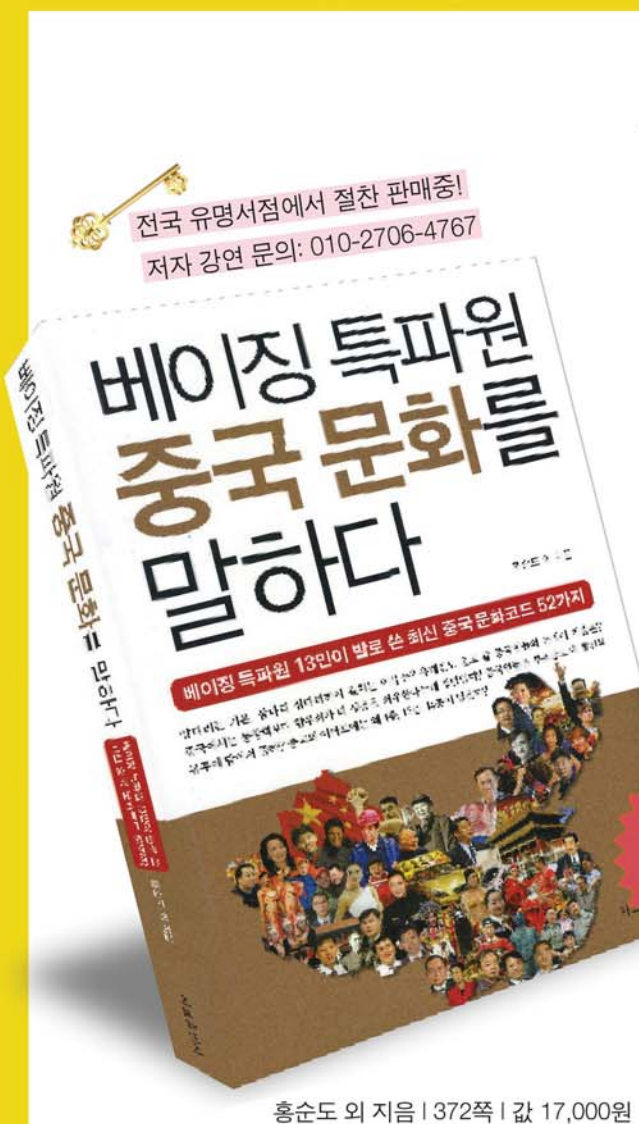
- 왜 중국에서는 동창회보다 향우회가 성공을 더 좌우할까?
- 유대인도 울고 갈 중국인의 돈벌이 기술은?
- 왜 중국에는 '어둠의 지식'이 수천 만명일까?
- 왜 중국인은 돈을 하늘처럼 떠받들까?

세계시민학교 8월의 책 선정

- 왜 중국인은 축의금을 붉은 색 봉투에 담아서 줄까?
- 왜 중국의 아파트에는 4층, 13층, 14층이 없을까?
- 왜 중국인은 1인자보다 2인자를 더 선호할까?

베스트셀러 『베이징 특파원 중국 경제를 말하다』의 후속편!

★★★★ 이현진 기자 등 베이징 특파원들이 중국인의 기질과 성격, 남녀관계, 뒷골목 문화, 험(嫌)한류 등 7가지 주제로 중국을 들여다봤다. '양다리'는 기본 삼다리, 사다리도 좋다. '왜 중국인의 식탁은 원탁일까?',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 등을 주제로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꽤 다른 중국인의 내면을 소개했다. _동아일보



홍순도 외 지음 | 372쪽 | 값 17,000원